

훌륭한 이탈리아 신부 님.

이제 그의 시복 절차가 주교에게 요청 되었습니다.

2026-1-2

페르디난도 란칸 신부(1926-2017)는 베로나 교구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1954년 성십자 사제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푸스 데이의 "성 십자가 사제회" 이탈리아 첫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제 그의 시복 절차가 주교에게 요청 되었습니다.

1953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로마에서 학업을 계속하던 페르디난도 신부는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린 교구 사제 모임에서 오푸스 데이 사제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리안 대학교의 저명한 영성 신학 교수이자 예수회 신부인 그의 영적 지도자는 그에게 오푸스 데이의 길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그는 "나도 그 집에 있었다", "그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